

역량기반 사회복지교육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은선경
케이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Exploratory Study on Competency-Based Social Welfare Education

Sun-Kyoung 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역량기반 사회복지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조사가 수행되었다. 대학교육에서의 역량중심교육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역량과 각 학문별 전공역량을 포함한다. 역량중심 사회복지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복지전공역량을 무엇이고, 전공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며, 전공역량과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방법과 참여적 학습을 위한 환경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사회복지전공역량을 제시하지 않고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전공역량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역량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는 대학은 자체적으로 전공역량과 교과목의 목표를 매칭하여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에 제시된 교과목의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목표는 대학별로 설정한 전공역량과 매칭되고 있었다. 셋째, 교과목지침서에 교과목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토론 등을 활용한 참여적 학습환경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교수방법이 핵심역량과 전공역량 달성에 효과적이지는 교수방법의 구성과 개념화 부족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교육의 전공역량을 설정하고, 그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교육목표 제시, 효과적이고 구체화된 강의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모델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교육성과의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competency-based social welfare curriculum.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published by the KCSWE (Korean Council for Social Welfare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ocial welfare professional competencies, subject goals, teaching methods, and the participatory learning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a competency-based social welfare curriculu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ach university had been researching professional competencies individually. Second, the social welfare subjects tended to include all elements of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and these goals were matched with professional competencies set by each university. Third, the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subjects provided various teaching method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subject as well as a participatory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discussion. However,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various teaching methods were effective in achieving core and professional compet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CSWE to set up a standardized competency-based curriculum and research professional competencies based on social welfare, a curriculum and subjects according to their competencies,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a method for evaluating educational outcomes.

Keywords : Competency-Based Social Welfare Education, Social Welfare Education, Competency-based Education, Professional Competency, 4th Industrial Revolution

*Corresponding Author : Sun-Kyoung Un(KC University)

email: imokurok72@gmail.com

Received May 20, 2020

Revised July 21, 2020

Accepted August 7,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대학의 학부과정에서의 사회복지교육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전문가)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전문가를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함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업무가 무엇이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교육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의 변화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변화를 추구해왔고,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교육의 지침을 제시하는 일련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패러다임은 역량기반에 초점을 두는 것에 있고, 초·중등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도 역량기반에 대한 강조는 최근 지속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강조와 변화는 대학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조직화하며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게 했다[1,2].

이와 같이 대학교육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위해서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규명된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변화를 꾀하며, 가르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량을 증진시키며,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1,3]. 즉, 대학교육은 인간만이 가진 가치, 독립적 사고,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지식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4], 이를 위해 일방적 강의를 벗어나 쌍방향적 학습,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과 적용을 통한 참여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 변화를 필요로 한다[1].

사회복지 전문성 추구를 위한 교육의 방향성 제시에 있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의 교과목 지침서 발간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사회복지교육기관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목의 개발 및 균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목지침서를 발간함으로써 사회복지교육의 지침과 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제시하는 교과목지침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기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적용가능한 전문적 지식과 구체적 기술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전공역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대처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5]은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법적요건을 강화함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화는 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가며 전공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가며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화만으로 역량기반의 사회복지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이 가능한가? 사회복지교육이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었고, 전공관련 구체적 기술교육만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6-8],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며, 교사의 역량증진과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역량중심교육과 전공역량교육

2.1 역량중심교육

역량중심 교육의 개념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시도는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먼저 진행되어왔으며, 그 역량중심 교육의 배경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기존지식의 융합과 혼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의 사회적 요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9].

대학교육에서의 역량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

나라에서 역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직업이나 직무에 관련하여 역량을 정의해왔다[10,11]. 즉, 역량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로서 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을 의사소통역량,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 역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12]. 그러나 최근의 역량에 대한 개념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

OECD에서 소개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y, 이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것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의 복잡한 삶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3], 21C에 전 분야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비판적사고,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14].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OECD Education 2030(OECD Education 2030: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 이하 OECD Education 2030)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역량체계를 고안하고자 하였다.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웰빙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역량은 지식(knowledge), 기능(기술, skills), 태도(attitudes and values)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량은 예측-행동-반성의 사이클을 통해 길러지고, 데이터 리터러시, 리터러시, 수리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변혁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변혁적 역량은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책임감 가지기, 긴장, 딜레마 등에 대응하기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변혁적 역량은 미래사회가 갖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에 대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과학에서의 윤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다양성과 이질성이 증가되는 세계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변혁적 역량이 교육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역량의 개념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역량의 지식측면은 지식은 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적 지식/절차적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식은 모든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인 학문적 지식, 학문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간학문적 지식,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론적 지식과 사고패턴 또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절차적 지식 등이 포함된다. 기능은 인지적·초인지적 기능, 사회적·감정적 기능, 신체적·실천적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기능에는 언어적·비언어적 기능, 고차원 사고기술, 문제해결 등의 인지기능과 자신의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인식하는 메타인지 지능, 그리고 사고, 감정, 행동이 일관성있는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감정적 기능, 물리적 도구, 작업, 기능을 사용하는 신체적·실천적 기능 등이 해당된다. 태도는 미래사회에서 주체적인 개인인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10].

이러한 역량의 개념은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핵심역량을, 각 교과 교육과정에 교과역량을 통해 역량중심 교육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핵심역량은 범 교과적 역량이고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필수적 능력으로서 어느 맥락에서나 사용가능한 일반역량인데 반해, 교과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지는 능력으로서, 교과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역량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되었다[9].

그렇다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교육과정안에서 어떻게 설계되는가? 이에 대해 총론중심 설계와 각론중심 설계의 2가지의 설계가 있다[15]. 총론중심의 설계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각 교과에서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각론중심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교과역량이 잘 획득되어야 일반역량이 제대로 발달될 수 있다[9]는 관점에 입각하여 각 교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교과역량 규명을 선행하여 설계하는 방식이다[9]. 각각의 설계방식은 장단점이 있는데, 다음의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은 총론중심 교육과정 설계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중심 역량반영 방식의 교육과정 개발을 선택하고 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먼저 제시하고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에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총론의 핵심역량을 교과특성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반영하되 교과목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6].

그렇다면, 대학교육에서의 역량중심 교육은 어떠한가? 역량교육이 교과의 고유한 지식체계와 원리제공에 소홀하고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9,17-19]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전문성을 간과할 수 없는 대학교육에서 어떻게 역량중심 교육의 과업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Table 1.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sign

| Spec. | General Centered Design | Subject Centered Design |
|----------|---|---|
| Strength | Conduct Core Competency Oriented Education under a Consistent System of General and Particulars | Acquire the Inherent Competence of a Subject in Depth |
| Weakness | Overlook the Unique Special Competencies of the Subject | Difficulty to Consistently develop the Core Competencies of Throughout the Curriculum |

대학교육은 보편적 지식의 탐구와 가르침을 통한 교양인 양성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과 전문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수행한다[13,20]. 주로 핵심역량에 따라 대학의 교과목을 매핑하게 되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 역량을 중심으로 생애능력향상을 추구하는 교양교육은 핵심역량에 따른 매핑에 큰 무리가 없지만, 전공교육의 경우 학과의 전공역량과 대학의 핵심역량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20]. 이로 인해 전공교과목에 대해 대학의 핵심역량과 학과의 전공역량을 구분하고 학과별 추구하는 핵심역량과 전공역량이 매칭된 역량중심 교육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도구로 제시되면서[21] 역량중심 대학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총론중심 교육과정 설계와 각론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조화가 요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과 사회복지학의 전공능력간의 관계설정에 따라 대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된다. 전공교육은 전공역량 달성에 초점을 두면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학의 전공역량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외국사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학의 전공역량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이하 CSWE)는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표준화된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을 수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22]. CSWE(2015)는 사회복지역량을 인간과 공동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목적, 의도 및 전문적 방법으로 상황을 실천하고 사회복지 지식,

Table 2. Social Welfare Competency of CSWE and BASW

| CSWE(US) | BASW(England) |
|---|---|
| Demonstrate Ethical and Professional Behavior | Professionalism : Identify and Behave as a Professional Social Worker, Committed to Professional Development. |
| Engage Diversity and Difference in Practice | Values and Ethics : Apply Social Work Ethical Principles and Values to Guide Professional Practice. |
| Advance Human Rights and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Justice | Diversity and Equality : Recognise Diversity and Apply Anti-Discriminatory and Anti-Oppressive Principles in Practice. |
| Engage in Practice-Informed Research and Research-Informed Practice | Rights, Justice and Economic Wellbeing : Advance Human Rights and Promote Social Justice and Economic Wellbeing. |
| Engage in Policy Practice | Knowledge : Develop and Apply Relevant Knowledge from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Social Sciences, Law, Other Professional and Relevant Fields, and From The Experience of People Who Use Service. |
| Engage with Individuals, Families, Groups, Organizations and Community | Critical Reflection and Analysis : Apply Critical Reflection and Analysis to Inform and Provide a Rationale for Professional Decision-Making. |
| Assess Individuals, Families, Groups, Organizations and Community | Intervention an Skills : Use Judgment, Knowledge and Authority to Intervene with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to Promote Independence Provide Support, Prevent Harm and Enable Progress. |
| Intervene with Individuals, Families, Groups, Organizations and Community | Contests and Organisations : Engage with Inform and Adapt to Changing Organisational Context, and The Social and Policy Environments that Shape Practice. Operate Effectively withi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rganisations and Service, Including Multi-Agency and Inter- Professional Setting. |
| Evaluate practice with Individuals, Families, Groups, Organizations and Community | Professional Leadership : Promote the Profession and Good Social Work Practice.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of Others. Develop Personal Influence and Be Part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and Impact of The Profession. |

가치 및 기술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3,24]. 그리고 CSWE는 사회복지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2008년부터 교육정책과 인증표준(EPAS: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 이하 EPAS)에 역량기반교육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교육내용(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과 교육체계(교육요소의 형식과 구성)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성취에 초점을 둔 교육모델을 제시했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의 역량은 Table 2.와 같으며, CSWE는 EPAS를 통해 9개의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고[24,25], 영국 BASW(Brit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전문역량 프레임 워크(Professional Capabilities Framework)로써 9개의 역량과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있다[26].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사회복지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사회복지사의 역량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23]. 첫째,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비롯한 인성과 자질의 덕목으로서 윤리의식, 다양성과 인권존중 등의 가치, 둘째, 전문가로서의 기본역량인 전문지식, 비판적 사고, 문헌조사와 연구능력, 셋째, 미시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기술역량, 넷째, 중시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와 조직, 그리고 행정 실무역량, 다섯째, 거시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법, 그리고 사회, 경제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 역량으로 살펴볼 수 있다[23,27].

그렇다면 사회복지학의 전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SWE는 EPAS를 통해 학사 및 석사교육의 기초과정과 전공과정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CSWE가 제시하는 학부교육과정의 특징은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강조로써 사회사업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일반사회복지실천의 강조, 2년간의 일반교양학습프로그램 및 전공기초와 사회사업 전공을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CSWE는 EPAS의 기초과정으로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사회사업 실천, 조사방법론 그리고 실습을 제시하고, 전공과정으로 특정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억압과 차별대우, 경제적 빈곤과 억압의 형태,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3].

BASW의 승인된 사회복지교육과정은 영국보건의료전문직협회(HCPC: The Health & Care Professions Council)의 공인프로그램에 등록된 사회복지분야의 승

인된 학위를 이수할 경우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관리된다. 업무영역을 직업적 가치와 윤리, 서비스, 보호자, 가족 및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관점, 증거기반 의사결정 및 분석, 개인 및 전문성 개발, 안전한 전문적 실천 및 보호, 커뮤니케이션, 타전문직과 함께 일하기, 기록 및 보고, IT 및 기술 사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영역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지식을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28]

3. 역량중심 사회복지교육을 위한 한국의 사회복지교육 고찰

3.1 사회복지 역량설정과 교육과정

한국의 사회복지교육도 현장과 교육의 괴리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복지생태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역량기반 사회복지교육과정으로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 역량을 제시하고, 각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목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전문역량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과 연결지어 제시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역량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에는 사회복지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사회복지 역량을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과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각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각 교과목에서 획득해야 하는 교과목의 목표를 기술하고 있어서, 교과목 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선이수교과목을 제시하고 있어, 학년별 이수체계를 대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교육기관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역량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K(1), S대학의 경우에는 학과에서 역량을 설정하고 각 학년별 이수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교과목별 전공역량을 제시하고 있다[29,30]. S대학교는 의사소통 및 관계역량,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기획 및 조사

역량, 다양한 인구집단 공감 및 옹호역량, 글로벌 역량, 자원동원 및 활용역량의 6개의 전공역량을 설정하고 있었다. K(1)대학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선도역량, 사회서비스행정역량, 지역공동체활성화역량,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제공역량, 공공부문복지서비스제공역량, 학대 및 폭력가정의 위기관리 및 개입역량, 보건-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역량, 학교복지서비스제공역량의 8개 역량을 설정하고 있었다. K(2)대학의 경우에는 전문직가치와 윤리의 실천,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실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와 실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사회복지 조직 이행과 행정실무, 개인·가족·집단·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실천, 조사연구의 7대 역량으로 설정하고 있다[6].

한국의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운영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필수교과목 10과목과 선택교과목 7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선택교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사회복지교과목은 앞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제시된 교과목 지침서에 따르면[31], 각 교과목의 선이수교과목을 제시하고 있어, 일련의 교육과정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윤리의식을 다루는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와 인권 등이 있고, 전문가로서의 기본역량인 비판적사고와 문헌조사 및 연구능력을 다루는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등이 있다. 그리고 미시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실천기술역량을 다루는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비롯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등이 있고, 중시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실무역량으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등이 있다. 거시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장론 등이 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 관련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분야론의 교과목이 있으며, 이러한 교과목들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반응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교과목들은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적 다양성, 국제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이 각각 전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교과목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 교육목표에 달성가능하도록 역량중심의 강의설계와 교수방법이 어떻게 매핑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 자체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역량과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사회복지역량설정을 위한 연

구와 체계화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3.2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 나타난 교과목별 교육목표 분석

사회복지교육에 대해 실천현장과 괴리된 지식이 되고,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6-8]는 평가는 역량중심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일 수 있다.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서는 2년마다 사회적 및 실천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교과목의 목표가 역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즉,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에 사회복지 역량설정과 일련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각 대학들이 설정한 사회복지의 역량과 각 교과목의 교육목표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9~2020년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서에 제시된 39개 교과목의 목표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목의 개별목표들은 앞서 살펴본 각 대학이 설정한 사회복지 전공역량에 견주어 볼 때, 각 교과목과 역량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많은 교과목들이 하나의 교과목에서 지식과 기능, 태도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식중심의 교육목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Fig.1과 Fig.2에서와 같이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서에 교과목별 교육목표는 지식 39개, 기능 31개, 태도 30개 교과목에 기술되어 있었고, 교육목표에 있어 지식의 내용만을 기술한 교과목은 5개 교과목이고 지식, 기능, 태도가 모두 기술된 교과목은 18개, 지식과 기능을 기술하고 있는 교과목이 14개, 지식과 태도를 기술하고 있는 교과목이 2개였다. 이는 사회복지교육이 지식의 습득 이외에 기능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개의 교과목 중에서 18개(46.2%) 교과목에서만 지식, 기능, 태도가 모두 기술되어 있었다.

교육목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식적 측면만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은 비율이 낮고, 지식, 기능, 태도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거나 지식과 기능에 대한 요소를 포함하고자 하는 목표들 둔 교과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교육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가능한 실천기술과 태도에 대한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서 이러한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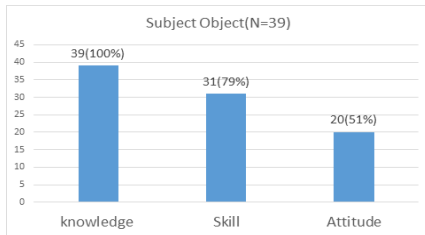


Fig. 1. Subjects O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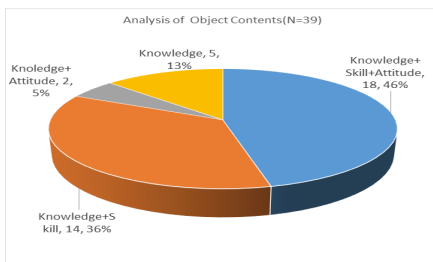


Fig. 2. Analysis of Object Contents

3.3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 나타난 교과목별 교수방법 분석

사회복지 교과목지침서에 제시된 강의방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2012~2014년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에는 주로 전통적인 강의, 발표 및 토론, 매체활용수업, 기관실무자의 현장특강과 기관방문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다[32]. 그러나 2015~2016년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에는 과목에 따라 강의운영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과 같은 강의방법의 변화가 제시되기 시작했다[33]. 그리고 2018년에 제작된 2019~2020년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에 이르러서야 과목별로 강의방법을 참고사항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각 교과목별 교수방법을 분석해보았는데, 대체로 다양한 교수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의 Fig. 3와 같다. 교과목 별 가장 높은 빈도의 교수방법은 강의와 토론으로서 24개 교과목에 활용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매체활용 교수방법이 20개, 현장특강 17개, 기관방문이 14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적용한 교수법은 PBL (Problem-Based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 교수법과 사례연구를 활용한 교과목으로서 각각 11개씩

제시되었다는 점, 실습 9개, TBL(Team-Based Learning) 교수법과 역할극이 각각 7개 교과목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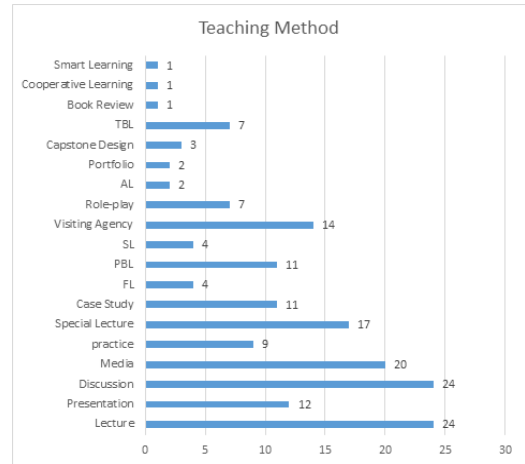


Fig. 3. Teach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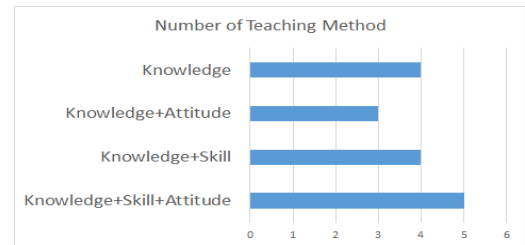


Fig. 4. Number of Teaching Method

더 나아가서 교과목의 목표에 따라 어떻게 교수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Fig. 4와 같았다. 교과목의 목표를 지식만 기술하고 있는 교과목과 지식 및 기능을 기술하고 있는 교과목의 강의방법은 평균적으로 4개의 강의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지식, 기능, 태도를 기술하고 있는 교과목들은 평균적으로 4개의 강의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다소 많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것은,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빈도의 교수방법들은 모두 역량중심 교육 이전의 교수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강의와 발표, 토론, 현장실무자의 특강과 기관방문을 통한 교수방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확대 이전부터 수행해왔던 방법이므로 오히려 긍정

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방법의 핵심은 일방향적 전달을 넘어선 쌍방향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참여적 학습을 독려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교육에서 토론 수업방식의 적극적 활용은 쌍방향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바, 쌍방향적 학습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각 교과목의 교육목표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강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Fig. 5와 같다.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교육목표에 기술하고 있는 교과목들은 강의(12), 토론(12), PBL(9), 매체활용(8), 현장특강(8), 사례연구(7), 기관방문(7), 역할극(6)의 순서로 강의방법을 많이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었으며, 다소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과 기능을 교육목표에 담고 있는 교과목들은 토론(8), 발표(7), 강의(7), 매체활용(6), 실습(5)의 순서로 강의방법을 많이 활용하도록 제안하였고, 기존의 사회복지교육에서 많이 활용하는 강의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지식중심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교과목의 경우, 매체활용(5), 현장특강(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존의 강의 중심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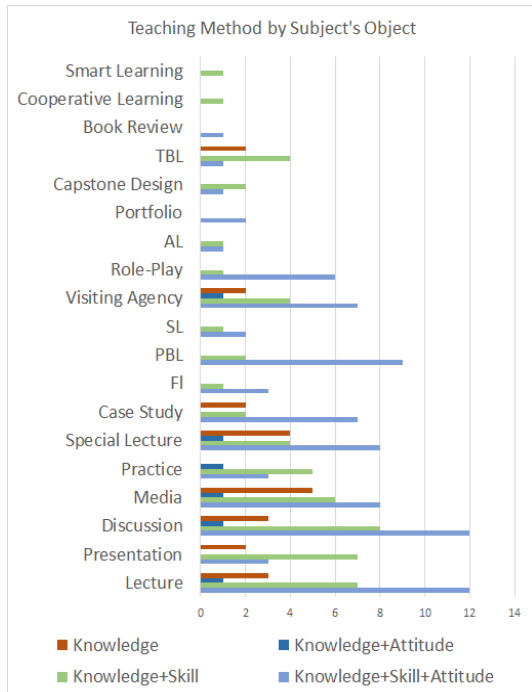


Fig. 5. Teaching Method by Subject's Object

분석의 결과를 볼 때, 사회복지교육은 강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좀더 역량중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여진다. 그러나 강의방법으로 분류된 19가지 강의방법의 내용에 유사성이 나타나 강의방법의 용어가 통일되게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설명식 수업, 토의식 수업(소집단토론, 패널토론 등), 협동학습(팀프로젝트, 코칭 및 개별지도 등), 발견학습(마인드맵 및 개념지도, 질문활용 등), 문제기반학습(프로젝트, case study, 저널작성, 독후활동 등), 모의실험(현장학습), 게임형 학습, 멀티미디어 활용수업(이러닝,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러닝 등)으로 구분한 연구에서는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34]와 같이 대학에서 사용되는 수업의 방법을 분류하였다. 이 교수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닌지 좀더 면밀한 파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새로운 교수방법으로의 시도 중에서 PBL, TBL수업 등은 그룹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수방법에 대한 기술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기술은 PBL수업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기술한 세부내용은 토론수업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도 새로운 교수방법의 활용과 접목에 한계로 나타나는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공유하며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는 강의방법의 변화는 추구하고자 하였지만, 구체화된 강의방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개별 교수자의 역량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각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가장 효과적인 강의방법을 연구개발하여 공유하고, 변화된 강의방법에 따른 교과목의 운영을 통해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4. 결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전공교육은 역량중심으로 설계되고, 이 역량중심 전공교육으로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공역량이 설정되고, 전공역량을 추구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공역량은 핵심역량과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전공역량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개발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전공교육의 강의 방법을 통해 훈련되고 향상될 수 있다. 핵심역량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만큼, 전공역량을 교육함에 있어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그들의 가치와 사고능력의 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에 따라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역량중심 사회복지교육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전공역량과 핵심역량의 성과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목지침서를 중심으로 교육목표, 교수방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교육목표와 교수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가 각 회원교의 전공역량에 대한 연구와 교과목지침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회복지 전공역량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왔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개발된 교과목 및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전공역량과 연결하여 조직화, 체계화해야 할 과업이 남아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전공역량에 대한 설정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공역량에 따라 사회복지교육의 목표 및 교과목의 목표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전공역량수립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방법과 참여적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적용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워크숍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량중심 사회복지교육은 실천현장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으로 표현되는 결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이 그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역량이 학습을 통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습성과의 평가는 역량기반 교육에 필수요소가 되고,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학생들의 학습결과와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할을 하는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할 것인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 L. Kang, "Study on the Direction and Practice of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3, pp.195-220,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3.195>
- [2] S. S. Paek, "Search for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2, pp.13-51, 2017.
- [3]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2016).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Retrieved from http://static.battelleforkids.org/documents/p21/P21_framework_0816_2pgs.pdf
- [4] J. I. Kim, "2018 Davos Forum, Presents 'Skills Revolution'" *Brain*, Vol.68, pp.64-67, 2018.
- [5] Enforcement Rules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s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259&efYd=20200103#0000> 2020.05.
- [6] S. K. Kim, H. Kim, Y. H. Won, S. Choi, J. Ahn, J. H. Bae, S. Kim, "A Study of Developing Social Work Competency Model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43, pp.1-27, 2018.
DOI: <https://doi.org/10.31409/KJSWE.2018.43.1>
- [7] J. H. Bae, "A Exploratory Study in Field Need for Improving Field Adaption of the Social Welfare Undergraduate Education: Focused on Core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14, pp.25-44, 2011.
- [8] S. Hong, M. M. Choi, "Social Work Education in Korea: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ions for Quality Assura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11, pp.1-31, 2010.
- [9] A. J. Chu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ion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10] K. H. Lee, M. K. Lee, J. Y. Seo, H. H. Byun, K. C. Kim, C. W. Yoo, J. Y. Lee, J. Y. Kim, K. J. Yoon,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According to the Curriculum Survey from OECD Education 2030 Project.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7.
- [11] C. Y. Jyung, W. S. Seo, S. I. Na, B. K. Song, K. J. Kang, "Strengthening Strategies of Key Competencies

- Needed for the Workforce Through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19, No.2, pp.1-22, 2000.
- [12]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 Homepage <https://www.kcesa.re.kr/intro.do> 2020.05.
- [13] J. H. Leem, Y. H. Park, M.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y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17, No.2, pp.125-153, 2015. DOI: <https://doi.org/10.18211/kihrdq.2015.17.2.005>
- [14] H. Kim, K. Lim, Y. Choi, “Analysis of Teachers Perceptions on the Application of Course Accreditation System in Univers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 pp. 1087-1105.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2.1087>
- [15] K. So, J. K, J. Han, “Review on Competency-Model for Subject Curriculum: Focusing on Curriculum of England, Germany, and Canad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23, No.3, pp. 153-175, 2013.
- [16] K. W. Lee, K. Baek, S. J. Lee, “Key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Relationship with the Idea of the Educated Person, Educational Goals, and Subject Competenci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35, No.2, pp. 67-94, 2017.
- [17] K. M. Kim, “The Attractiveness and Limit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The Journal of Maral Education*, Vol.20, No.2, pp.171-197, 2009.
- [18] H. Han, E. J. Park, “Re-stipulating the Nature and Status of Theoretical Knowledge By Focusing on the Arguments of M. Young and R. Pring”,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33, No.3, pp.29-49, 2015. DOI: <https://doi.org/10.15708/kscs.33.3.201509.002>
- [19] M. Young, D. Lambert, C. Roberts, M. Roberts, Knowledge and the Future School Curriculum and Social Justice, Bloomsbury Academic, pp.89-110. DOI: <http://dx.doi.org/10.5040/9781472593405.ch-004>
- [20] K. T. Seo, Y. K. Yun, “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Focused on the Key Competencies of University and Departm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7, pp.163-173,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imahs.2019.9.7.015>
- [2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enter for Colleges Evaluation and Consulting Homepage <http://uce.kedi.re.kr/introduce3.do> 2020.06.
- [22] CSWE Accreditation Homepage <https://www.cswe.org/Accreditation> 2020.05.
- [23] S. Kim,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Social Welfare Curriculum”, *Journal of Social Welfare History*, Vol.2, pp.50-70. 2019.
- [24]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 approved by the CSW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15.
- [25]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CSWE), 2022 Educational Policy(EP) with Track Change Developed by Commission on Educational Policy(COEP) and Commission in Accreditation(COA) Joint EPAS 2022 Subcommittee, 2019.
- [26] BASW, PCF-Social Worker <https://www.basw.co.uk/professional-development/professional-capabilities-framework-pcf/the-pcf/social-worker> 2020.05.
- [27] S. K. Kim, H. Kim, Y. H. Won, S. Choi, J. Ahn, J. H. Bae, S. kim, “A Study of Developing Social Work Competency Model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43, pp.1-27, 2018. DOI: <http://dx.doi.org/10.31409/KJSWE.2018.43.1>
- [28] Institute for Apprenticeships & Technical Education Homepage <https://www.instituteforapprenticeships.org/apprenticeship-standards/social-worker-degree/> 2020.06.
- [29]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Homepage <https://knusw.kangnam.ac.kr/menu/2fbf74ea79f017448adf45fbcc1d387e.do> 2020.06.
- [30]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omepage http://www.stu.ac.kr/CmsHome/stu03_01_04.eznic 2020.06.
- [31] The Guidebook for Social Welfare Subjects(2018) by Korea Counci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http://kcswe.kr/bbs/board.php?bo_table=b0401&wr_id=17 2020.05.
- [32] The Guidebook for Social Welfare Subjects(2012) by Korea Counci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http://kcswe.kr/bbs/board.php?bo_table=b0401&wr_id=15 2020.05.
- [33] The Guidebook for Social Welfare Subjects(2015-2016) by Korea Counci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http://kcswe.kr/bbs/board.php?bo_table=b0401&wr_id=16 2020.05.
- [34] J. Chang, J. Kim, I. Park, “ Undergraduate Students’ Identofocation of Types,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eaching-Learning Activities in Class”, *The Korean Journal of Educa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9, No.2, pp.371-396, 2017. DOI: <http://dx.doi.org/10.17927/tkiems.2017.29.2.371>

은 선 경(Sun-Kyoung Un)

[정회원]



- 1998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케이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